나라와 민족의 주적(主敵)에게 교회가 할 일

(딤전2:1~7)

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3.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7.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나라와 민족의 주적에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주적, 그러니까 주된 원수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와 민족의 주적이 누굽니까?
먼저는 이북입니다, 아주 불행한 일이죠 동족이 주적이 된 것은.
그리고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역사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정말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경을 아주 강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의 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본 국민 다는 아니잖습니까?
이북은 계속 주적이고, 때를 따라서 일본은 누가 정부의 요인으로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같은 경우 아베 수상과 그를 추종하는 국수주의적 우익 성향의 사람들은 정말 우리나라와 민족의 주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는 그리고 교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적으로 한 번 답해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강한 전제를 가지고 읽으면 성경의 내용이 바뀌어버려요.
그 강한 전제라는 것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절대적인 가치다' 이런 전제를 갖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대할 때는 모든 전제와 선 이해를 다 제거하고 들으려고 해야 되요.
그렇게 들으려고 할 때, 오늘의 주제와 관련돼서 예레미야서 29장 7절 같은 경우는 참 재밌는 말씀이 거기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구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바벨론에 잡혀갈 것인데, 완전히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릴 것이고 온 국민을 유린하고 왕부터 다 잡아갈 것이다, 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비참하게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생활할 때 너희가 살게 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너희 마을을 위해서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너희가 사는 바벨론 성읍이 평안하므로 너희 삶이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뭐 말입니까, 뭡니까?
원수의 나라에 들어가 살면서 원수의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할 것은, 원수의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가 그 안에서 사는 동안 평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건 뭐 대놓고 일본의 앞잡이가 되라는 말보다 더 지독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벨론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구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온 맘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이 말과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살 때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해서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맘으로 구하고 찾기 위해서 평안이 필요한 것이고, 그 평안을 위하여 너희가 살고 있는 원수의 나라의 땅이지만 그 땅에 평안이 임하도록 구하라는 겁니다.
그 평안이 전제되어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찾는 데에 유리하니까.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제하에서 우리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합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고, 3.1 만세운동도 결국 교회에서 시작한 겁니다.
유관순 열사가 뚜렷하게 부각된 인물로 그분도 기독교인이었지만,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랐

는데 강릉에 와서 출석하는 감리교회의 역사가 113년인데, 그 교회에서 시작했다고 해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나라의 독립운동은 독립운동가들에게 맡겨두고 교회는 만약 일제 식민지하에 있는 동안에, 일본이 평안하기를 바라면서 교회가 일본의 천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본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독립운동에 가담한 것만큼의 열정으로 복음전파에 열중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변해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천황과 총독과 일본의 지도자들을 위해 순교하는 마음으로 계속 복음을 전했다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면 지금 국제정세 자체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잘한 걸까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교회가 앞장선 것이 교회로서 할 일이었을까요?
그냥 교회로서 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일을 한 게 아닐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일이었다면 과연 그것은 올바른 교회의 나갈 길을 간 것이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주님께서도 로마식민지하의 조국을 위해서 독립투쟁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독립투쟁을 하자는 제자들의 모든 요청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주셔서, 그 다음에 교회가 한 일은 독립을 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가 민족을 식민지화한 것은 복음전파를 위해서 유용한 기회제공의 사건으로 교회는 흡수해버린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번 이해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의 평안한 생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것을 생각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새삼스레 여기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잘 다스려서 이 나라와 민족이 안정된 생활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평안히

살 수 있게 하라!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 말씀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현령비현령이고 성경을 성경으로 대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서 임금과 높은 지위는 지금 에베소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헬라 지역 출신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교회라고 하는 곳은 라틴계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나라와 민족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는 터키 지역에 있는 그때 로마제국 내에서 아시아라는 이름의 도(道), 무시아라는 도가 있고 아시아, 갈라디아 길리기아 밤빌리아 등… 여러 도가 있고, 지금 사도바울은 그리스 반도의 북부에 있는 마케도니아 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제국 내에 이태리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이태리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에게 임금과 높은 지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지배 하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을 자꾸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정치가들을 위해 기도해야 우리의 삶이 편안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정말 곤란합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 지금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자질에 관한 얘기를 1절에 했습니다.
그 핵심내용은 뭐냐 하면, '선한싸움을 스스로 싸우라' 선한싸움이 뭐라고 했지요?
내 마음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끊임없이 제거해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과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과 양심의 요구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주는 사건이 십자가사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십자가를 생활화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 죽으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는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일은 내가 주력할 일이 아니고, 내 마음은 세상일로부터 떼 내고 세상일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면 이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안에서 모양지어진 그대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일이 이렇게 저렇게 돼야 된다는 선악과나무를 따먹는 일만 중지하면, 그냥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업이 좀 잘되든지 못 되든지, 자식이 원하는 대로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상관없이 내게 주시는 복이고, 내게 주시는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일을 위해서 힘쓸 게 아무것도 없고 십자가를 생활화하기만 해서 선한싸움을 싸워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이 떨어지지만 않게 하면 된다 이겁니다.
나 스스로 그렇게 싸우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똑같은 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선한싸움을 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사업 때문에 오는 교인들을 보면 사업에 대해서 죽게 만듦으로 사업에 뺏겼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사업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보니까 이게 정말 복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모여서, 목회자가 선한싸움을 싸우고 교인들로 하여금 선한싸움을 싸워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십자가생활화가 온 교인들에게 다 공감되고 동의되고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 각자가 십자가생활을 하면서 선한싸움을 통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세상일은 다 하나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그 선한싸움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싸우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생활화를 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전하게 될 때 내적인 방해요소에 부딪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십자가복음의 타당성 그리고 이 복음을 생활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요청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아들에게 딸에게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에게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대화를 해보면 '아유, 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남편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반발한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지금 대학생이고 다 큰 자식들인데도 이들은 십자가복음을 받아들여서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이쯤 나이가 돼서 5, 60쯤 지나가지고 이제 세상 살만큼 다 살아본 상태에서나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꿈 많고 할 일 많고 계획과 의욕 많은 이 젊은 아이들에게

는 십자가를 전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않고 있어요, 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십자가생활화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놓인 처지나 성격적 특성에 따라서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괜찮은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 전하라는 말이 네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캘빈주의를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근거해서 캘빈을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한 사람만 예정했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느냐, 하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란 보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미니언 주의자들이 이 구절에 근거해서 보편구원론을 얘기합니다.
즉, 만인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은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이 분명히 성경 속에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어떤 신분, 어떤 계층, 어떤 민족, 어떤 나라와 어떤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 중에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내 기호와 이해관계와 내 편견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기서 본문의 주제가 아닙니다.
뭐가 주제입니까?
내가 선한싸움을 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갖게 돼서 세상의 상황과 관계없는 항상 기쁨을 가질 수가 있고,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기준만 없애버리면.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의 기준이 살아있어서 자꾸,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고집을 하니까 감사할 일이 안 생기고 불평만 하게 되지, 그 기준을 싹 없애고 나서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으면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기가 막힌 삶이더라 이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천국 때문에 행복해지고,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하신 열매들을 맺어 가시니까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없어서 전하려는데, 예를 들어 로마황제에게 어떻게 전합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얘기는 로마황제가 나와 무관한 자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우린 자꾸 피붙이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그 사람들이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었다고 믿으

니까.
그러나 황제도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가 어떻게 정치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과 내 자식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연도가 63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64년부터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고 네로의 박해가 시작된 이후로 200년 동안을 기독교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바울의 기도의 내용,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기록에 보면 초대교회 안의 구성원이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공예배를 드릴 때면, 그때의 공공예배라는 게 큰 예배당은 없었지만 가정에서 여러 집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때 노예들이 모여서 빠지지 않고 했던 기도가 바로 황제와 주인을 위한 기도였다고 해요.
자기 주인들이 그렇게 학대하는데도, 계속해서 로마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그들이 빠뜨리지 않고 기도했던 게 황제를 위한 기도와 주인을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기독교가 계속 퍼져나가면서 200년 뒤 로마제국 전체가 뒤집어엎어지면서 기독교국가가 돼버리고 맙니다.
로마가 유대민족이라는 작은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다가 그 유대나라에서 목수일 하다가 하나님나라를 전파하고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의 이야기를 믿는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식민지의 종주국인 로마제국이 기독교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자식이나 내가 지금 십자가를 대놓고 전하기가 뭐하다,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선한싸움을 싸우기 위해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되는 삶을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박 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청와대에 가서 만나지 않아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적인 김정은과 아베 수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에요.

우린 기회를 놓쳤어요, 식민지였을 때에 그 나라를 뒤집어버렸어야 되는 겁니다, 36년 동안.
분명히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에 의해서만 독립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른 섭리가 있었어요.
바벨론에 잡혀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만 찾고 있으라, 바벨론 땅이 평안하도록 기도해서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이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들은 비록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자극하고,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쏴대면서 위협을 하고 있어도, 나라와 민족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교회가 묶여버리지 말고,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일본의 아베와 그를 따르는 각료들, 김정은과 그를 따르는 각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전도의 실질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내 혈육과 내 나라와 민족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복음은 전파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임금과 높은 사람들이라는 건 에베소 지역에서 보면 주적입니다, 자기 나라와 민족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종주국의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전도의 가장 강력한 실천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이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계획 안에 이끌어 가실 겁니다, 북한도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다.
그러면 우리는 뭐해야 하느냐?
교회가 할 일은 오바마 대통령 한 번도 만나지 못해도 시진핑 주석 한 번도 만나지 못해도 기도하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남편, 도저히 내가 입으로 꺼낼 자신 없습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13년에 네로가 박해를 시작한지 250여년이 지난 뒤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가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노예 신분의 기독교인들이 주인을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임금을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그 다음의 구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진리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래서 사도바울 자신이 그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기도가 가장 강력하고 우선적인 전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내가 살고 있는 십자가의 생활화를 그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일본 아베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김정은은 안 될 거야, 그건 뭐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를 받았는데, 뭐!'

사도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의 모습을 보면 김정은의 악함 저리가라였을 거예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교회를 잔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진 겁니다.
스테반이 기도합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이북의 김정은과 정치인들, 일본의 아베 수상, 또 중국도 마찬가지에요, 그 옛날 에베소와 황제의 관계, 황제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삶의 조건이 바뀐다면 관계가 있는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에요.
아베가 어떻게 하느냐, 시진핑이 오바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내 자식의 취직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살고 잘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만나서 십자가를 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할 수 있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 시진핑 주석, 아베 수상이 십자가 생활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 기도를 조금씩 뉘앙스를 바꿔가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 도고가 중보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그들이 이 시대에 나와 함께 존재하는 것 자체를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걸 감사하면서 기도하자는 얘기지요.
나라와 민족의 주적들을 위하여 그들이 십자가를 생활화할 수 있게끔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실 것을 도고, 중보하면서 감사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주적들조차도 십자가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도하기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와 교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